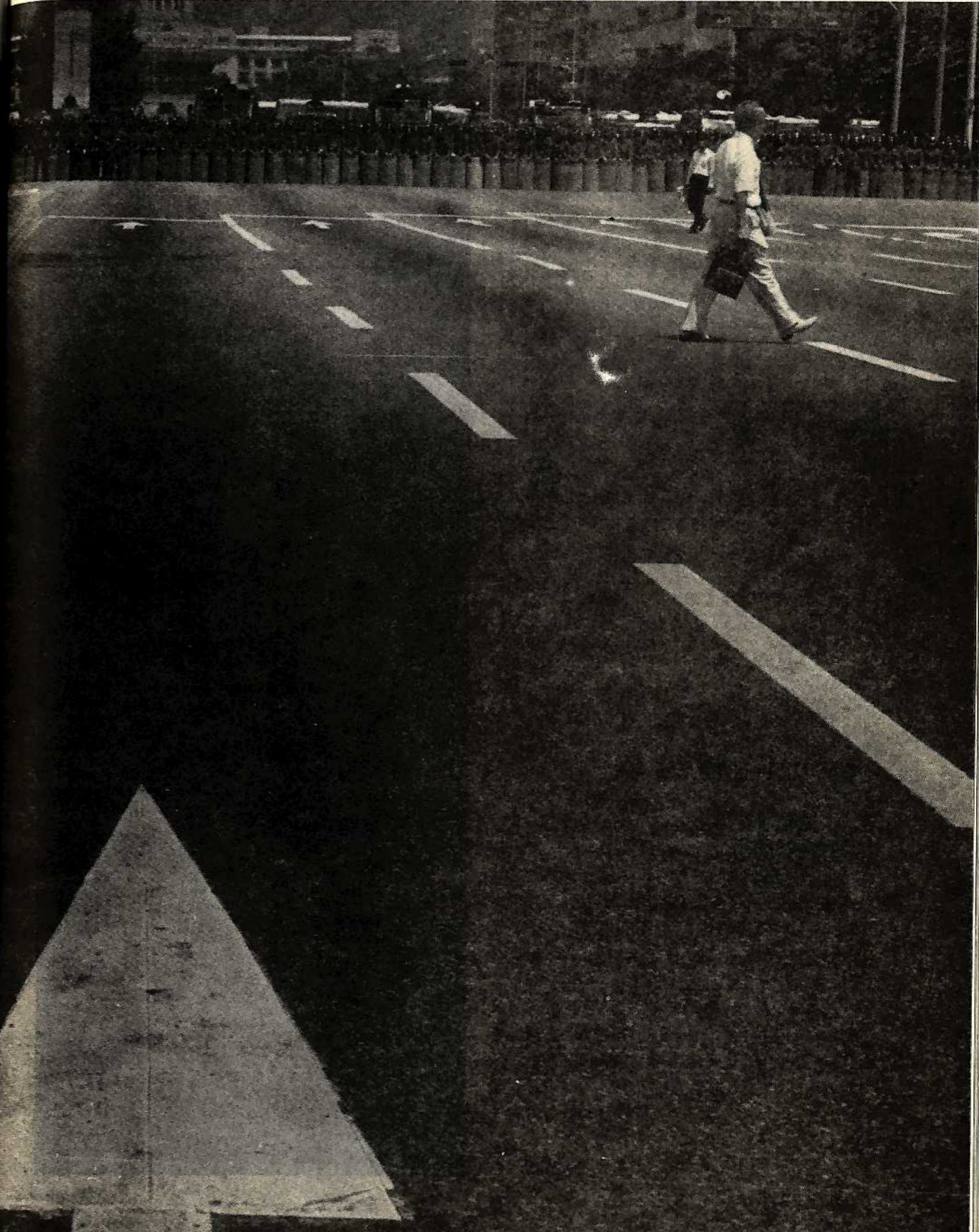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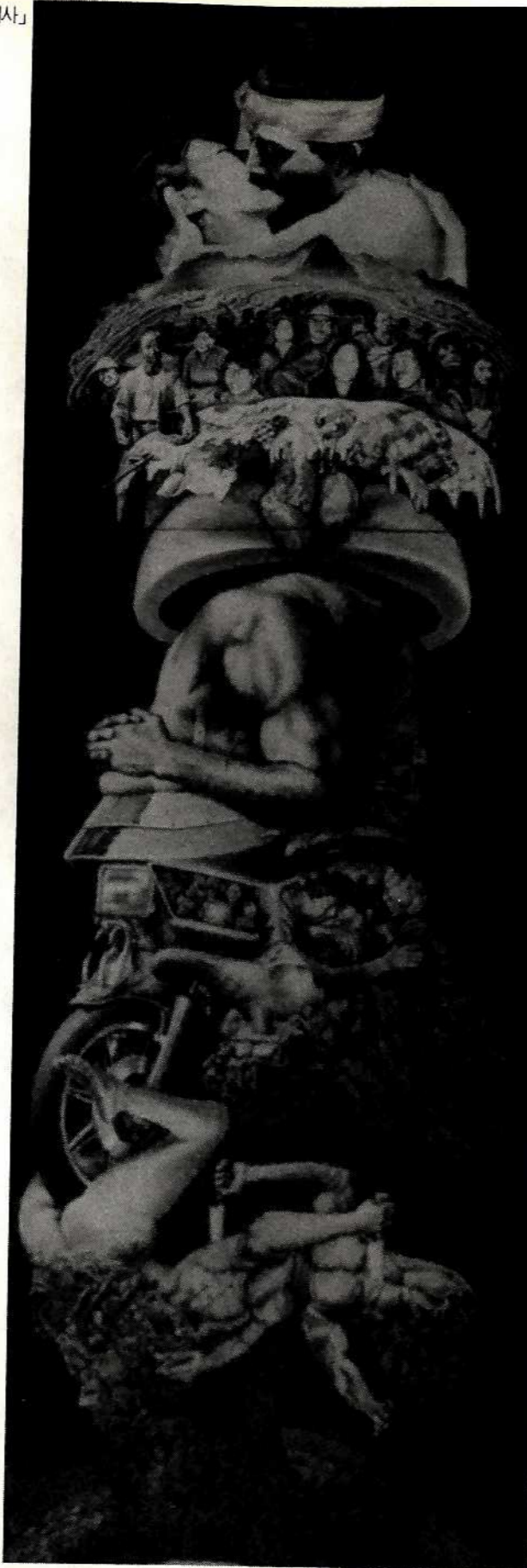


시민미술학교 만원버스
73x60 고무판 1985년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빨발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려 깨우면
 눈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문제작가전-신학철 작품 철거

때 : 1986년 1월
곳 : 서울미술관

1986년 1월 서울미술관에서 기획한 전시회 '81~'84 문제작가작품전(4년간에 선정된 문제작가 종합전시회)에 출품된 신학철(민족미술협의회 공동대표)의 작품 중 일부를 당국이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철거를 요구하였다. 미술계에서 새로운 조형성의 작가로 그 위치가 뚜렷한 작가의 작품까지도 관료적 시각으로 재단하는, 당국의 처사는 냄새 잘 맡게 훈련된 사냥개의 모습이 분명하다.



만화 '깡순이' 작가 이은홍 구속

때 : 1986년 5월

1986년 5월·인천 5·3항쟁 무렵 서울노동운동 연합신문에 게재된 이은홍의 네칸만화 '깡순이'에 대한 탄압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미술부문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라는 터무니없는 조작으로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동시에 미술운동 작가들에게 노동문화와 노동미술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미술 탄압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었다. 5월 4일 보안사 요원에 불법납치된 이은홍은 서울노동운동연합 사건에 연루된 10여명의 동지와 함께 송파 국군보안사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 이에 미술운동권에서는 '민중미술 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 '깡순이 작가 이은홍씨 구속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 보고대회에서 대책위원 7명이 참석, 사건 경위를 보고하고 성명서를 배포하였다. 이와 더불어 '민중미술협의회', '노동미술활동가탄압 대책위', '구속노동자가족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 협의회' 공동으로 <노동미술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라는 자료집을 발간하여 미술운동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건물벽면에 바락칠하는 모습

신촌 도시벽화「통일과 일하는 사람들」 파괴

때 : 1986년 7월 9일
 곳 : 신촌역 앞 3층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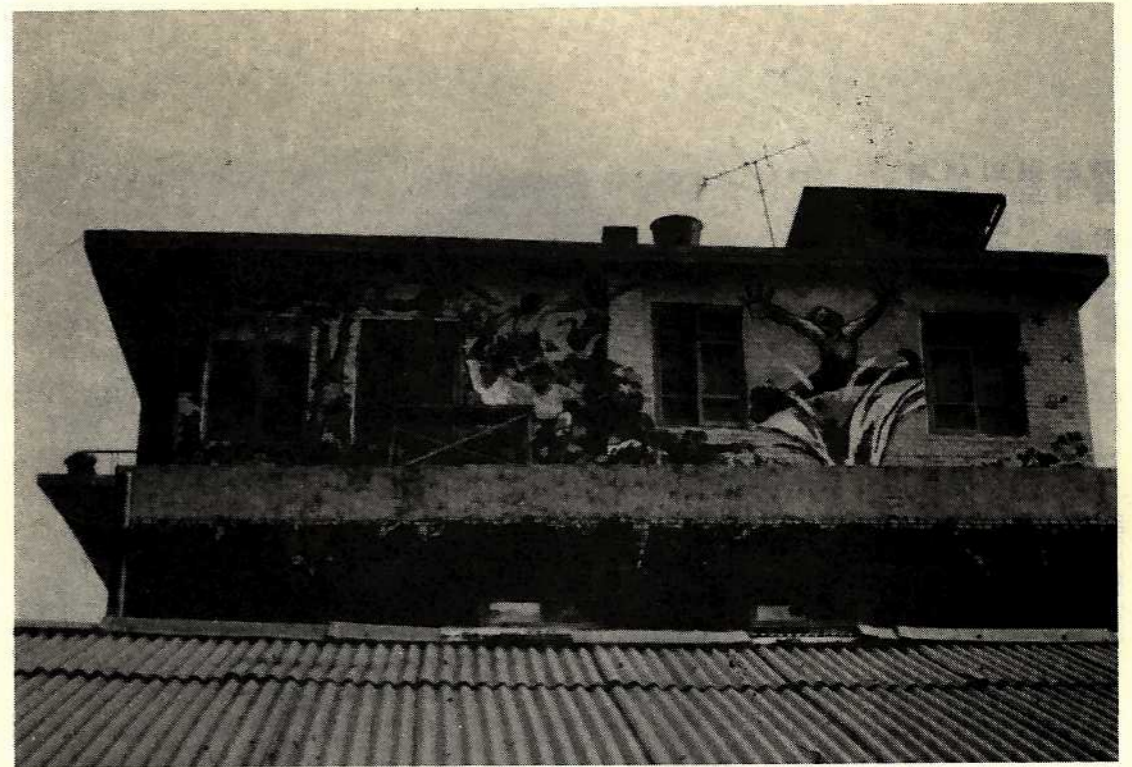
1986년 7월 9일 신촌역 앞 3층건물 외벽에 김환영, 박기복, 송진현, 남규선, 강화숙, 김영미 등 (서울미술공동체 회원) 6명이 벽화를 제작하였다. 이 벽화는 거리의 건물벽화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미술의 기능이 미술 전문가들만의 영역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게 일반 대중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 바탕을 두었다. 이들 작가에 의해 제작, 완성단계에 이른 벽화 <통일과 일하는 사람들>은 1985년 7월 9일 밤 11시 어둠을 틈타 당국에서 나온 50여명(구청직원 외)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파괴되었다.

6명의 회원이 1개월여에 걸친 토론과 연구 끝에 완성단계에서 파괴된 이 벽화는 1층 벽면에 꽃장수 아주머니와 어깨동무하고 있는 청년들을

그렸고, 2층 벽면에는 백두산 천지와 일하는 노동자·학생·사무원·농부 등 모습을 힘차게 그려,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민중의 바램을 나타냈다. 3층에는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꽃으로 뒤덮인 민중세상의 모습을 재미있고 활기있게 표현했다.

이에 대하여 문공부 문예담당자는 내용 중 주먹을 쥐고 내지르려는 장면, 망치를 치켜든 모습 등은 다분히 도전적이며, 웃옷을 벗고 뛰는 모습 등은 시위를 연상케 한다는 억지해석으로 철거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완성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그 벽화 내용에 대한 정당한 심의절차도 없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지워버린 작태는 군사독재정권의 정권유지를 위한 무지막지한 예술정책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서 기록될 것이다.





건물 측면에 완성된 벽화



「통일과 일하는 사람들(서울미술공동체)」



건물 전면에 완성된 벽화

구청직원들과 작가들이 다투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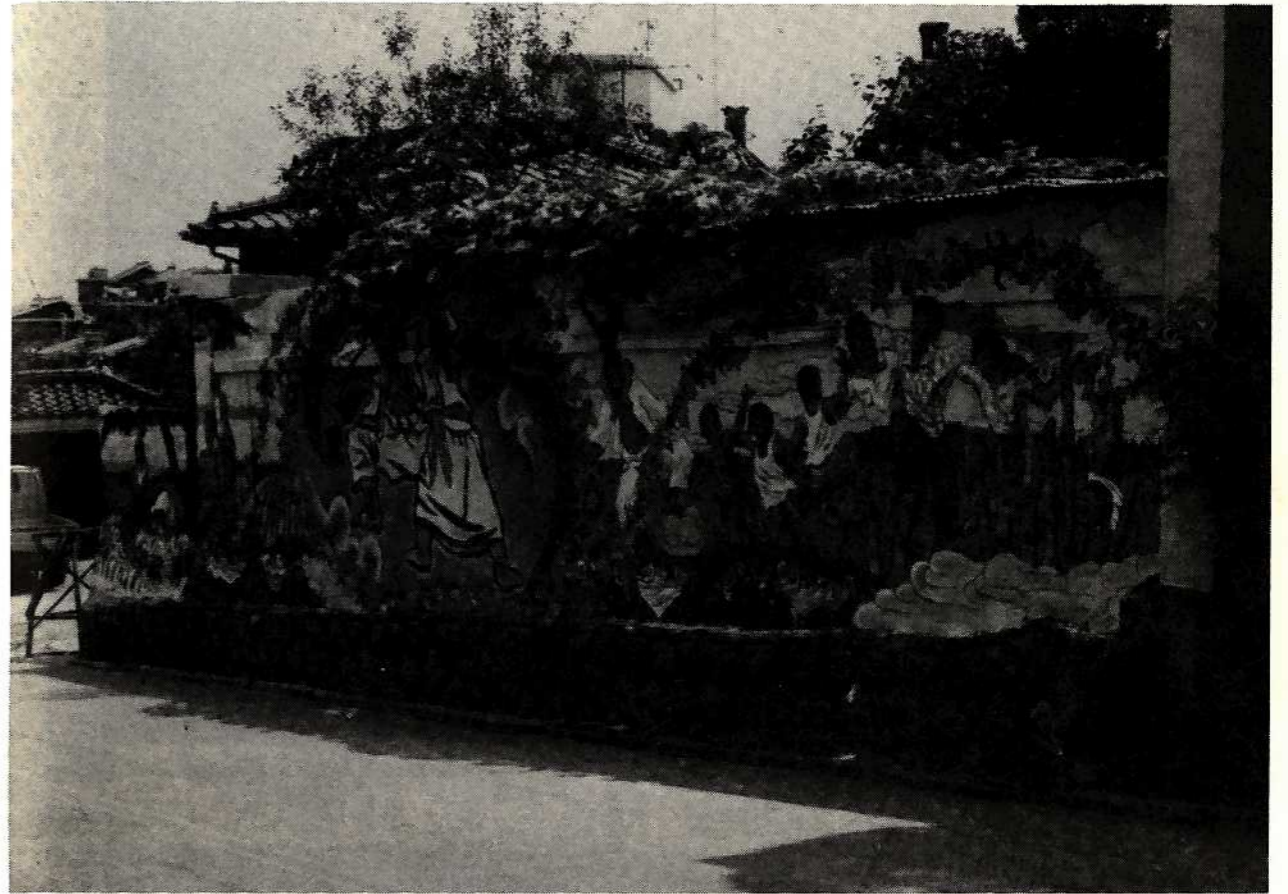
우리는 무슨 과도한 특권을 요구한 일이 없다. 오직 자신의 힘과 돈과 시간을 들여서 작업하면서 이 시대 미술 문화를 창달하겠다는 예술적 열정을 보여 주었을 따름이었다. 우직한 관료들은 이 아름다운 미담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 지원은 해주지 못할 망정 무자비하게 철거해 버린 아둔함에 대하여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보신 분은 알 것이다. 그 우중충한 신촌역에 그 도시벽화가 그려지면서 얼마나 활기찬 공간이 되었던가를. 본 협의회는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책임자의 사과와 함께 당국은 벽화 재제작을 방해하지 말것, 그간의 모든 경비 및 앞으로 들 제작비용을 손해배상해 줄 것을 벽화 제작자와 함께 엄중히 요구하면서 만약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 예술인의 이름으로 창작의 자유를 위한 무한대의 강력한 싸움을 벌일 것을 확실히 해둔다.

화가에게 있어서 캔버스는 얼마든지 넓혀질 수 있고, 그것은 화가가 일하는 현장이요, 생명을 발현하는 기본 터전인 것이다. 우리는 창작의 자유와 일의 터전을 가질 최소한의 요구를 주장하고 있음을 당국은 똑똑히 듣고 현명하게 처신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1986년 7월 10일

민족미술협의회



완성된 「상생도」벽화

정릉벽화 파괴

때 : 1986년 8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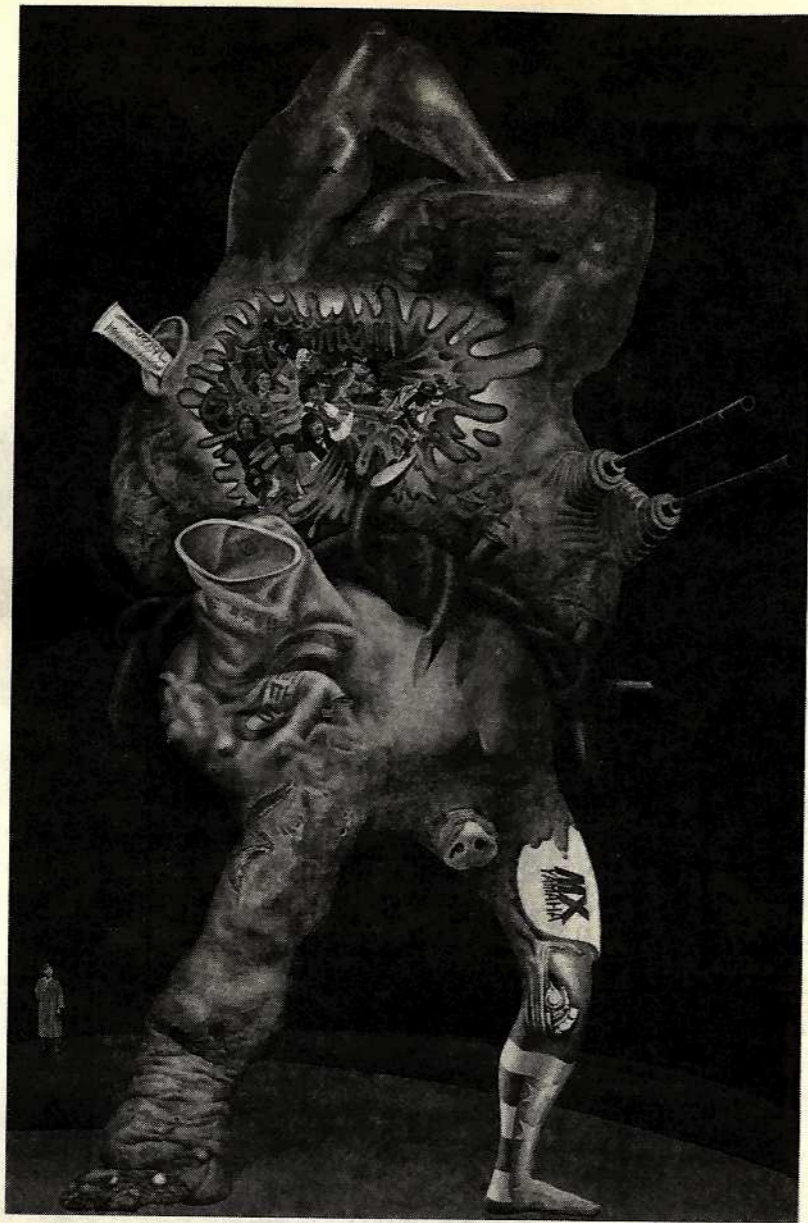
곳 : 유연복 집 담벽(정릉 2동)

정릉 상생도벽화는 민미협회원 유연복 등 5명의 작가가 7월 26일부터 1주일간 유연복 자택 담벽(16×2.5m)에 태극무늬를 배경으로 제작한 것이다. 민족통일을 기원하며 꿈과 진실, 희망 등의 민중적 정서를 표현한 정릉벽화는 그림내용에서 보듯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한다하여 경찰이 두 차체에 걸쳐 벽화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유연복, 김진하, 최병수, 홍황기, 김용만 등이

제작한 「상생도」는 8월 2일, 완성단계에서 1백여명의 구청직원과 경찰에 의해 무참하게 지워졌는데, 다음날 3일, 작가들이 다시 복원해 낸 벽화를 100여명의 구청직원과 전경에 의하여 재차 유성페인트로 복원 불가능하게 지워져버렸다. 또한 항의하는 작가를 연행하여 '광고물 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4인의 작가들도 같은 죄로 불구속입건 하여 당국의 공권력이 무절제하게 남용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그후 1년이 지난 다음 서울지검에 의해서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신학철 「한국근대사-분단상황」

성균관대학교 전시작품 탈취, 신학철 작품 외

때 : 1986년 9월 말

곳 : 성균관대학교 수원 캠퍼스

민족미술협의회는 그동안 문화예술계와 대학 내의 문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1984년 서울을 위시하여 광주, 대구, 부산 등 도시와 연세대, 고려대 등 대학내에서 순회전시 했던 '해방 40년 역사전' 이후 민미협은 넓혀진 대학의 문화공간을 더욱 확대시켜 학내전시 및 각종 미술 강좌 등에 집중 지원을 했었다. 그런데

당국은 성균관대 수원 캠퍼스에서 열렸던 대학문화행사에 전시한 다음 보관중이던 민미협 작가들의 작품 50여점을 불법 탈취하여갔다. 탈취당한 작품들 중에는 광주시각 매체연구소의 대형작품 '개관', 신학철의 '한국근대사', 홍성담의 '민중항쟁연작관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같은 만행은 당시 '86아시안 게임'을 두고 가열되고 있는 대학생시위를 막기 위해 배치된 기관원들에 의해 자행되었던 것이다.



안성벽화(400×700cm)

안성벽화 파괴

때 : 1986년 11월 2일

곳 : 경기도 안성 청룡당구장 벽면

1986년 11월 2일 경기도 안성(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후면 옆)청룡당구장 벽면에 이종률, 정승각, 김재곤, 김홍수, 김원주, 김성민 등 중앙대 회화과 재학생 6명이 벽화를 제작하였다. 지역개발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상업촌으로 변화한 대학촌 안성군 대덕면 내리 지역을 따뜻하고 훈훈한 도시환경으로 미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이 벽화 역시 당국에 의해 파괴당하였다.

1986년은 벽화 수난의 해였다. 신촌, 정릉벽화의 연이은 파괴에 이어서 중앙대학교 미술대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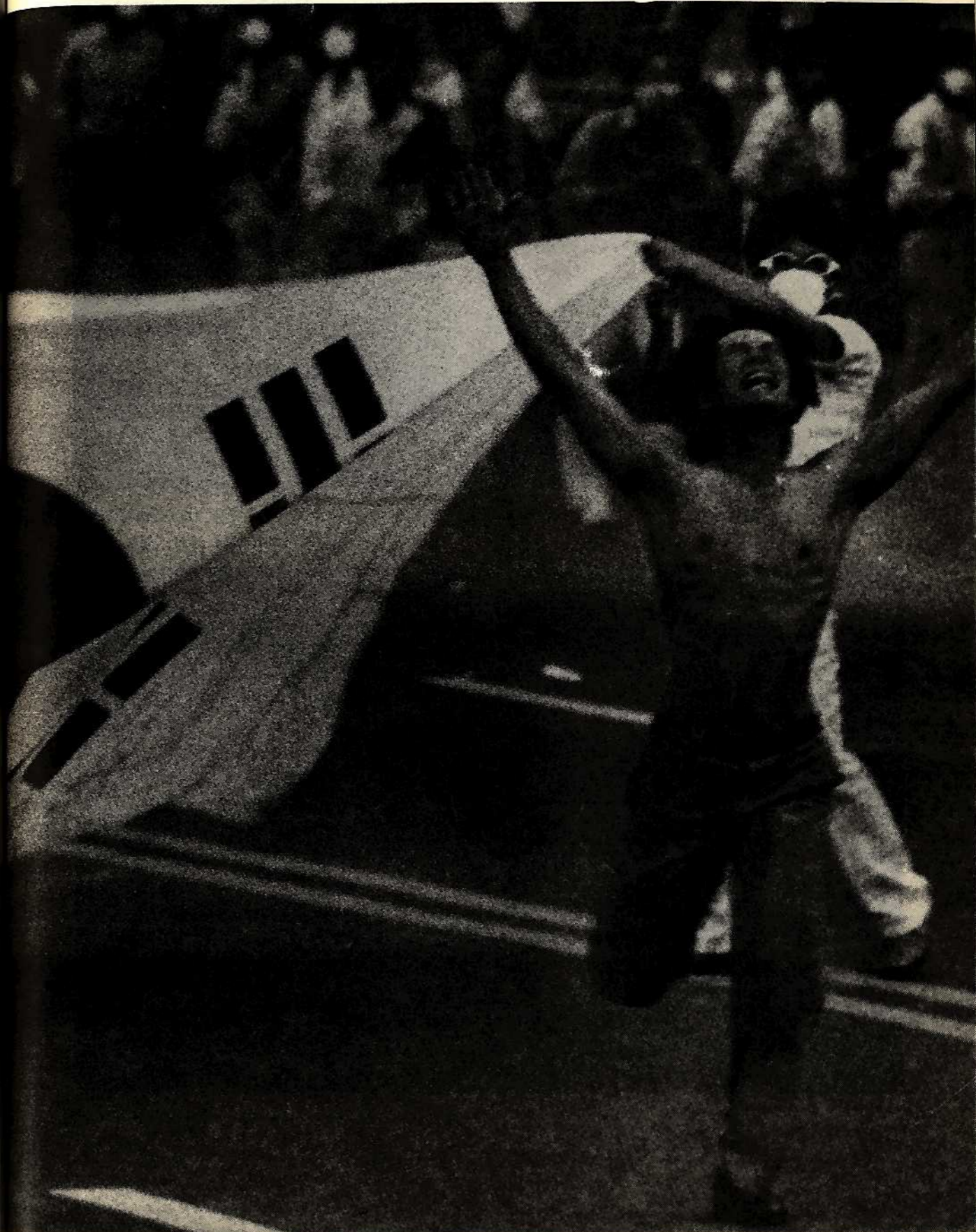
학생들이 건물주와 함께 경운기로 작품을 운반하여 공들여 제작한 벽화가 안성경찰서의 압력에 견디지 못한 건물주에 의해 수성페인트로 지워지게 되었다. 특히 이 벽화제작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벽화에 관한 설문조사까지 마친 뒤여서 그 어느 벽화제작 과정보다도 의견을 수렴 했었다. 건물주는 '11월 3일 학생의 날 기념행사에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니 벽화를 즉시 지우라'는 경찰의 압력을 받고 일요일 제작자들이 대책을 논의하러가고 없는 틈을 이용, 작업대를 철거하고 수성페인트로 지워 버렸다.



벽화제작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벽화의 밑그림이 완성된 단계





문영태 「박종철 열사」

반고문전 전시탄압

때 : 1987년 3월 10~23일

곳 : 인사동 그림마당. 민

참가작가 : 김용태, 신학철, 주재환, 김정현, 임옥상, 김종례, 윤석남, 여운, 강행원, 황효창, 이철수, 안규철, 박석규, 문영태, 강요배, 박불뚱, 안창홍, 김진숙, 서주익, 최민화 외 30명

2월초 서울대생 박종철군의 고문치사사건은 온 국민을 경악과 분노로 치솟게 했다. 이것은 1986년에 있었던 부천경찰서의 끔찍한 성고문이나 민청련 전의장 김근태씨 등에 대한 살인마적 고문과 민주 양심세력에 대해 공공연히 자행되어 왔던 전두환 고문정권의 실체를 증명해 주는 부분적인 사례였다.

미술인들은 이에 인권수호와 고문근절이라는 명분을 갖고 「반고문전」을 개최, 전두환정권에서 일어난 무자비한 탄압과 갖가지 고문, 연이은 변사사건에 대한 투쟁적인 폭로작업을 전개하였다. 민족미술협의회 주최로 열린 「반고문전」은 3월 10일부터 23일까지 1,2부의 행사내용 중 인권회복에 관한 강연, 고문사례보고, 미술사에 나타난 고문 등의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국은 개막 전부터 줄곧 행사관계자들의 동태를 파

악, 감시하고 3월 14일 오전 9시경 종로경찰서 소속의 정보과 형사들과 전경 3개 중대를 전시 행사장인 그림마당·민 주위에 배치, 오후 5시에 있을 고문사례발표 및 황인철 변호사의 강연 중단을 요구하며 전시장 주변을 완전히 봉쇄했다.

이에 민미협은 즉각 민미협 사무실에서 비상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행사를 강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오후 5시경, 전시행사에 찾아온 관객과 민미협 회원 100여명은 동원된 경찰과 대치, 민미협 회원의 전단 살포 및 경찰의 즉각 탈취 등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전경 100여명은 차도로 나와서 계속 성명서를 낭독중이던 홍선웅 사무국장과 민미협 회원 6명을 닭장차에 밀어넣고 강제로 연행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민미협 회원 40여명은 자살, 민문협회원들과 함께 연행자가 전원 석방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 경찰은 연행자를 석방하고 앞으로 이런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회유, 그러나 경찰은 17일 슬라이드 강연도 사복경찰 100여명을 주위에 배치하여 원천봉쇄하였다. 경찰은 이에 항의하는 민미협 회원 4명을 연행, 저녁 늦게서야 풀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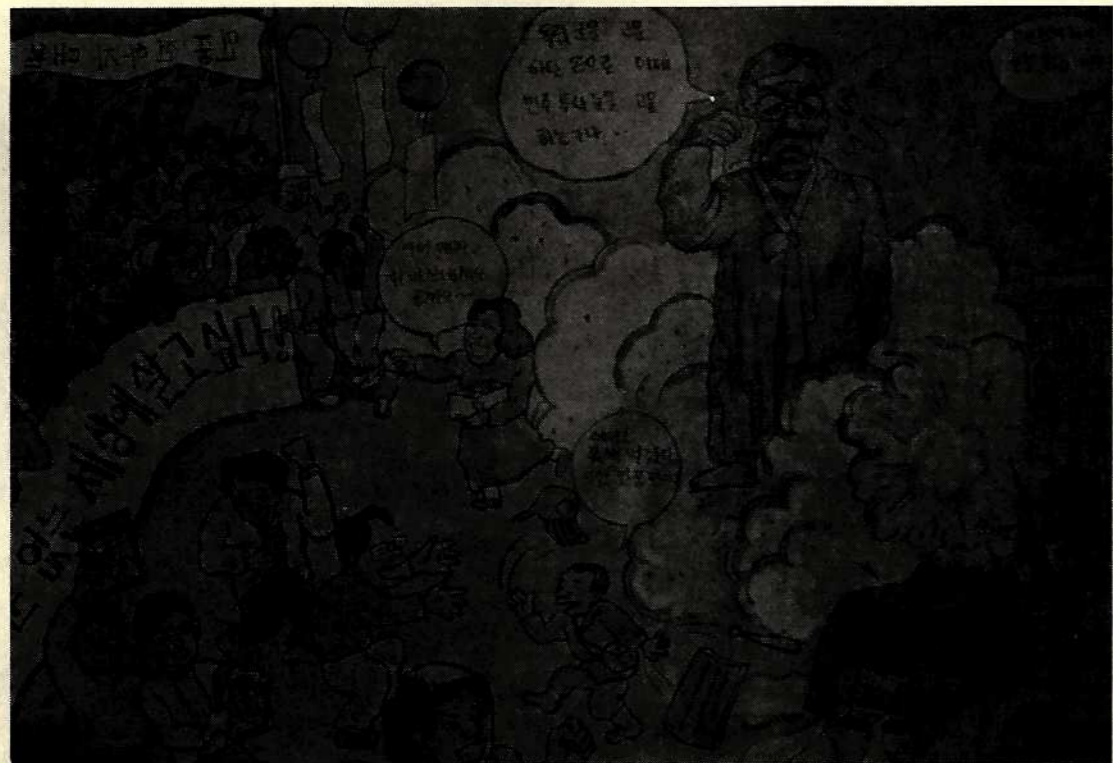
박불뚱 「불법연행」



「짐목시위」



광주시각매체연구소



두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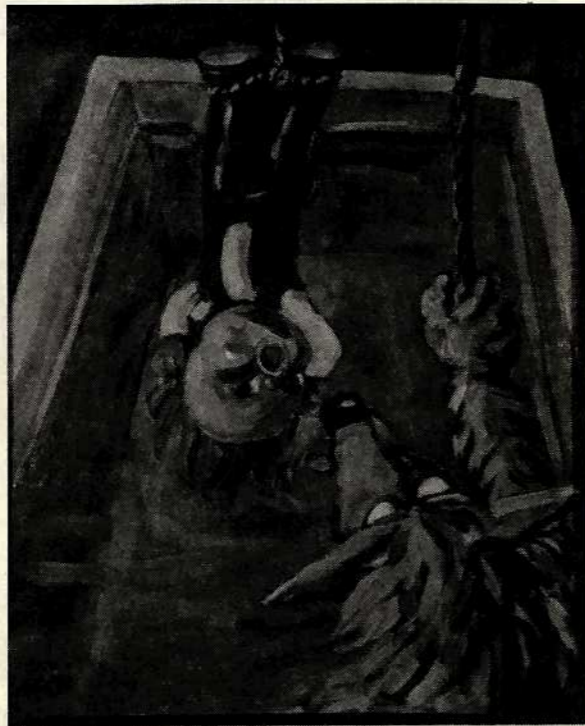
김환영



임옥상 「어른들은 뭘 하는거야?」(부분)



강행원 「호랑이의 고문」



황효창 「물고문」

반 고문전 전시 행사 봉쇄를 규탄한다.

이 땅에 야만적인 군부파쇼 추방과 군부파쇼의 물리적 폭력 앞에 안타깝게 죽어간 수많은 민주 열사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기획된 '반 고문전'이 파쇼정권의 하수인인 경찰에 의해 행사 자체가 중단되었다. 당국은 3월 14일(토) 오전 9시 종로 경찰서 소속의 정보과 형사들과 전경 3개 중대를 전시 행사장인 그림마당·민에 배치하고 반 고문전과 고문 사례 발표에 관한 일체의 행사가 불순한 의도에서 계획됐다는 명목으로 전시장 주변을 완전히 차단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에 있을 고문 사례 발표 및 강연의 중단을 요구하며 그림마당·민을 봉쇄, 전시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게 되었다.

종로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은 지난 3월 10일 작품 3점을 철거한 이후 마치 불운한 음모라도 꾸미는 것처럼 줄곧 전시 기획자의 동태를 파악하고 행사 자체를 언제라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강압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또한 반 고문전에 대한 여론 호응이 고조되자 이제는 전시 자체까지 봉쇄하는 군부파쇼의 야만 행위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박 종철군의 살인 고문도 이런 상습적인 공갈에 의해서 자행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지난 박 종철군 고문 살해 사건이 다시금 상기됨에 치떨리는 분노로서 이번 전시행사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이번의 행사가 살인적 폭력 앞에 무참히 쓰러져간 박 종철군과 민주 열사에 대한 진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서 또 다른 박 종철군 같은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미술인의 열망에 의해서이다.

이 시간에도 술한 인권들이 말살되고, 갖가지 형태의 불법 강제 연행, 장기 구금, 수사 및 고문, 용공조작 사태의 속출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현실 앞에서, 더이상 반도덕적이고 반인간적인 작태가 침묵으로 일관될 수 없음을 전국민과 우리 미술인들에게 알리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전시를 통해 절박하고 열악한 인권 현실을 조장하고 간과하는 모든 적들과 싸울것을 굳게 천명하며 우리의 당연한 예술 창작의 권리를 방해하는 당국의 폭력 앞에 끝까지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쟁취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1.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집회 결사의 탄압을 중지하라.
1. 살인 고문의 만행을 규탄한다.

1987년 3월 14일

민족미술협의회



14일 오후 서울鍾路구寬勳동 「그림마당 민」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고문사례발표회」가 경찰의 출입자 봉쇄로 열리지 못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을 모아서 어둠을 밝히자

— 4·13호헌조치에 대한 미술인 202인 선언 —

우리 미술인들은 민족의 잠재된 가능성을 무한히 개발하고 조국의 내일을 밝고 건강하게 펼쳐 나아가기 위해 국민 대중에게 봉사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자각한다. 따라서 그간 열화같이 일고있던 국민 대다수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무참히 저버리고, 민주개헌을 유보한다고 발표된 4·13호헌조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 미술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첫째, 4·13호헌조치는 무조건 철회되어야 하며, 헌법개정논의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생존권 보장에 역점을 두면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한다.

둘째, 헌법개정논의가 국민 대중의 민주화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구속된 양심수에 대한 전면석방과 함께 사면·복권, 그리고 민주투사들에 대한 지명수배령 해제가 즉각 취해져야 한다.

셋째, 언론출판의 자유와 학문·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예술·창작표현의 자유등이 명목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헌정권은 전시취소·전시장봉쇄·작품철폐·작품파괴·작품압수·미술인 구속 등 그동안 자행해 온 폭력적인 만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미술인은 4·13조치에 관한 각 종교단체, 교수, 문인들의 서명 및 단식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이땅에 진정한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민주화가 실현되며 민족통일을 이룩할 날까지 싸워나갈 것을 굳게 결의하는 바이다.

1987년 5월 8일

민족미술협의회

서명자

화 가

주재환 신학철 손장섭 박한진 김경인 권순철 박석규 김정현 김용태 황효창 강행원 여운 배남한
이준석 유성숙 김인순 윤석남 송현숙 김종례 서상환 신경호 임옥상 김호득 민정기 손상기 이청운
문영태 나중희 홍선운 안창홍 박충금 강요배 박재동 박세형 박홍순 권철인 김덕남 김봉준 이철수
옥봉환 황재형 송만규 홍성담 이홍원 정하수 김경주 손영익 김방죽 이기연 최정현 이인철 손기환
이섭 박불뚱 정복수 백은일 김인철 유은종 김부자 김우선 박진화 유연복 박홍규 김민 주완수
지호산 정선권 박광수 조신항 성연 신철수 김종익 김정식 최경태 전성숙 송문의 김용덕 이억배
송준재 김기현 이승곤 김종도 서재봉 김환영 정정엽 김선태 백창흠 김형구 송진현 남색별 이수영
김준호 박현희 김영은 김혜정 박혜영 문샘 김진명 박영기 최경숙 신태봉 이영진 이준성 한경태
유은옥 김부식 김향배 김영미 이주원 박선미 노유경 김성주 조혜란 이종률 정남준 정인석 김혜숙
김만희 김현희 박경미 박홍식 신가영 손자연 이승진 이성화 박형식 김기영 박영은 김정곤 이은숙
박기복 이수남 허준 설경민 엄희용 조현권 이병훈 허동섭 윤중돈 김덕순 권성주 윤경희 김낙일
이유선 안중호 이학민 김인경 장하순 최병수 우진 송영순 배정화 고선아 김봉환 박희정 김상화
박경환 구선희 이정미 송윤희 함중호 박동익 김진하 김희대 박순덕 김문희 정지영 정문일 권윤덕
조인수 최춘일 이주영 강문수 박효영 이은주 노승환 박건원 김남준 홍성현 이석원 정동희 정해균
조창수 강효숙 박일민 박창경 조광현 정보환 정진영 천광호 이성경 (191명)

미술평론가

김윤수 원동석 민혜숙 최민 유홍준 윤범모 최열 라원식 심광현 곽대원 최석태 김영동(12명)

사진작가

김영수 이종만 조문호 김민숙 홍진원 안문선 정동석 김성수 이성신 신돌배 이은재 김종훈(12명)

만화가

최민화 장영수 이은홍 한영화 김노리 민해민 영강 들황 당안 들영 후(11명)

조소·공예가

강대철 변승훈 이태호 이연수 김구한 이춘호 양지혜 김영희 한애규 우영란 조선숙(11명)

4·13조치에 대한 '호헌철폐' 미술인 선언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박종철 군을 고문 살인하고 야수적인 범인들마저 은폐 조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약속한 민주개헌을 4·13호헌조치로서 파기하고, 군사독재의 지속적 옹호와 이에 따른 독재 권력자 끼리의 정부이양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호헌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대신하여 국가적 도덕성의 회복을 추구하고, 독재헌법과 이에 따른 독재권력의 영구집권으로 인한 민족적 파탄을 저지하기 위해 미술인의 단호한 결의를 선포하였다.

화가, 미술평론가, 조각가, 공예가, 만화가 등 202명의 명의로 된 성명서를 작성, 1987년 5월 8일 오전 민족미술협의회 사무실에서 「4·13호헌조치에 대한 미술인 202인 선언」을 발표하였다. 서명자 202인의 명단이 함께 실린 이 선언에서 첫째 4·13호헌조치의 무조건 철회와 헌법 개정논의의 재개, 둘째 구속 양심수의 전면석방 및 사면복권, 실질적인 예술 창작표현의 자유 보장 등 3개항을 촉구하므로서 위대한 6월항쟁의 불꽃에 결연히 동참하였던 것이다. 진정한 민중·민족미술의 완성이란 민주통일과 민중해방, 그리고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과 일치될 때만이 가능하다 는 사실을 민족사 속에 뚜렷이 밝혔던 것이다.



이한열 열사 운구행렬

‘그대, 뜯눈으로’ - 최민화의 광장미술(이한열 열사 부활도) 탈취

때 : 1987년 7월 2일

곳 : 서울특별시 시청앞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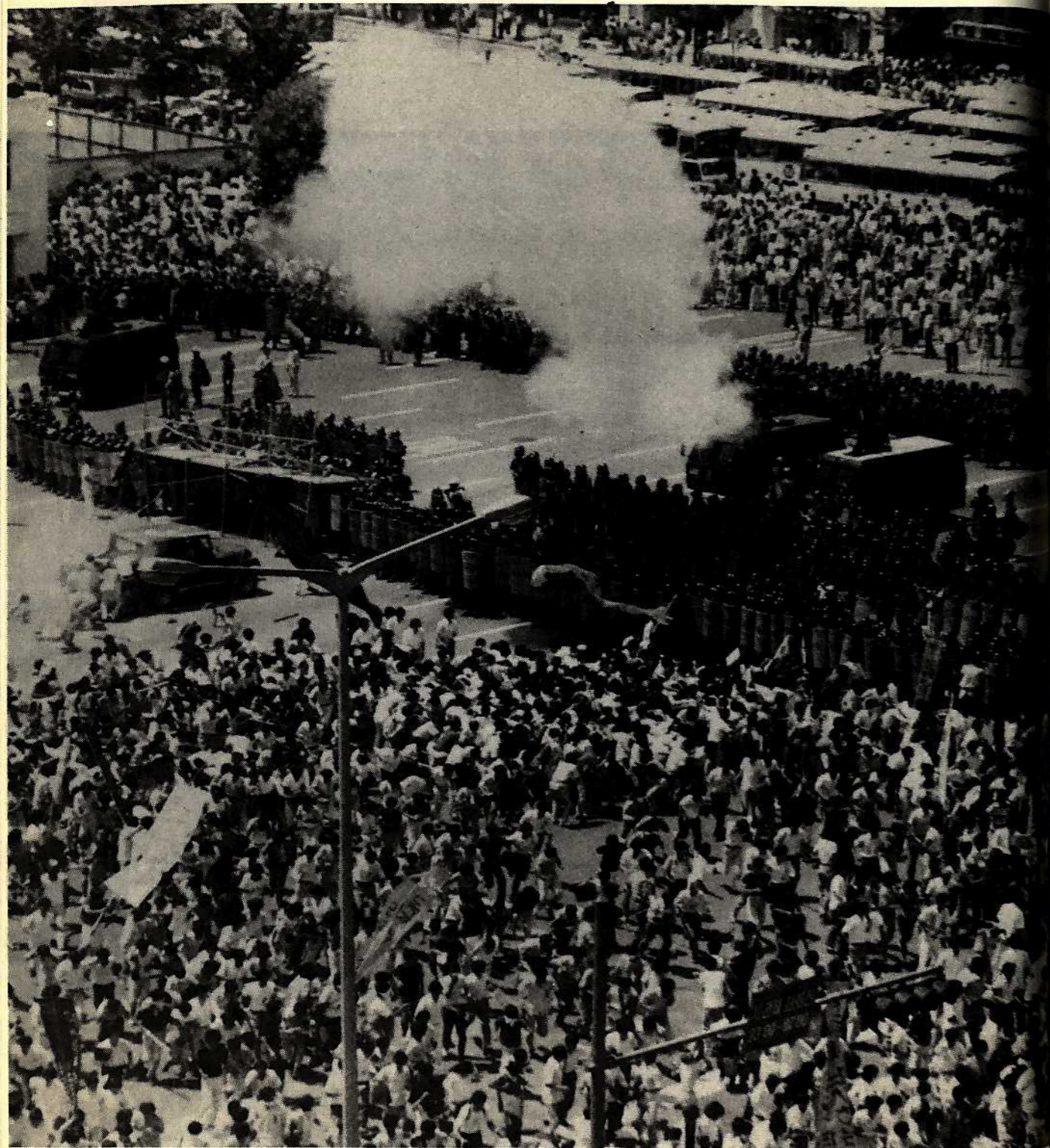
1987년은 반외세, 반독재 투쟁의 전면적 고양기로서 평가된다. 박종철 고문살해사건에 이어 2·7, 3·3 투쟁과 그리고 그 뜨거웠던 「6월의 3주간」에 민주쟁취 제단에 바쳐졌던 이한열 최루탄 살해사건은 반도 남단을 휘몰아친 민중항쟁의 소중한 불꽃들이었다. 「6월 민주화투쟁과 7,8월의 노동대중투쟁의 정당한 요구가 미술운동에 부여한 커다란 힘은 광장미술로서의 발전을 유도하였다. 이는 미술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술작품이 수천, 수만명이 모인 대중공간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고, 이땅의 민주화를 갈망하는 민중의 열망을 표현해 내고자 하는 걸개그림들이 여러 곳에 등장하였다. (장해술)」

200만이 운집한 이한열군 영결식은 백양로에서 시청까지 6월항쟁의 대중적 연대로의 도약을 뚜렷하게 보여준 커다란 물결이었으며, 하룻밤새 그려진 최민화의 대형그림 ‘그대, 뜯눈으로’(이한열 열사 부활도 크기 2.5×6.3m)는 시민, 학생들에 의하여 시청앞 광장으로 옮겨져 대중들과 함께 세종로 가두 투쟁의 선봉에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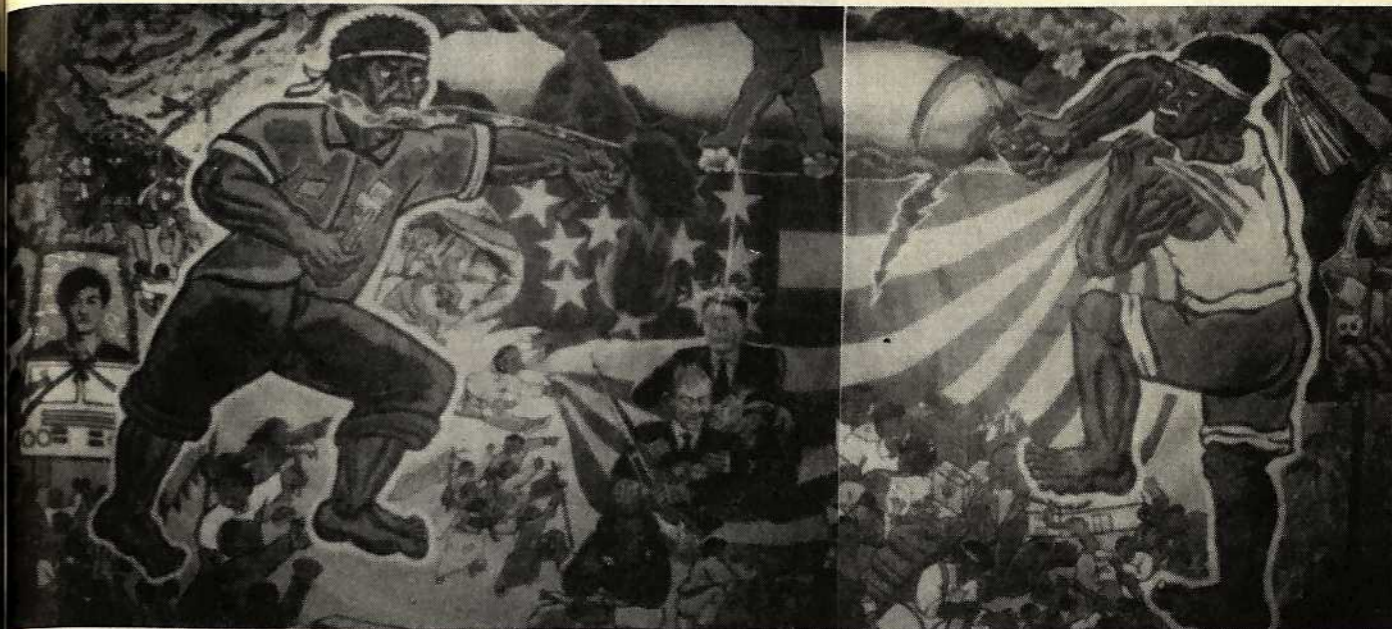
전면에 이한열군의 부활한 모습이, 역사의 승리자로서 오른손으로 독재자와 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형상을 움켜쥐고 왼손으로는 책을 부여잡고 푸른 하늘에 표효하며, 하단중앙에는 6월항쟁의 희생자와 통곡하는 노동자, 그리고 민중의 투쟁과 분단 한반도의 비극적 수난사가 화면의 좌우로 펼쳐진 이 그림은 진압군의 최루탄 살포용장갑차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고 말았다.



연세대에서 서울시청 광장에 도착한 최민화의 대형그림(그대 뜯눈으로) (250×650cm)



‘독재자의 칼’에 의해 파괴된〈그대 뜬눈으로〉(세종로)



전정호, 이상호「백두의 산자락 아래」

「통일전」출품작가에 국가보안법 적용

때 : 1987년 8월 7일-27일

곳 : 그림마당·민

1987년 8월 7일부터 27일까지 3부에 걸쳐 그림마당 「민」에서 전시된 〈민중해방과 민족통일 큰 그림잔치〉는 여러 행사를 포함하여 열기있게 열렸다. 그후 지방순회전을 중요도시(광주, 인천, 전주 등)에서 마련하였다. 다음 전시로 9월 1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 신탐은행 전시실에서 전시되던 중 9월 2일 18시경 제주서 대공과 소속 기관원 8명이 전시장에 난입, 전시작품 중 4점을 불법탈취함과 동시에 작가를 연행, 최초로 화가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구속한 일이 소위 노태우 6·29선언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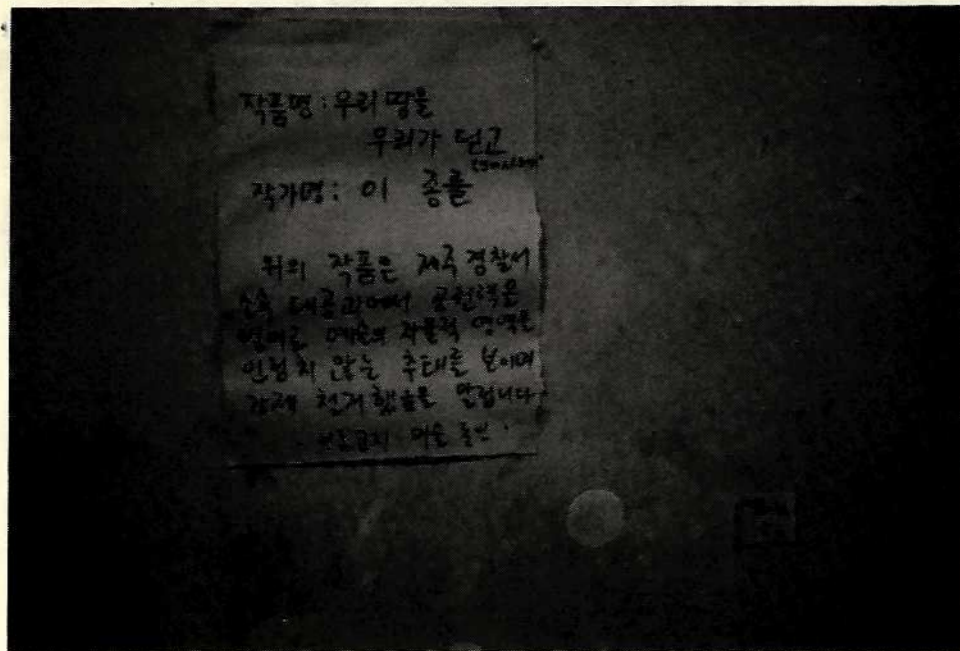
민족미술협의회 공동대표 주재환은 7일 종로서 대공과로 연행되었고, 9월 10일에는 작가 이상호, 전정호가 「백두의 산자락 아래」를 제작한 이유로 광주서 대공과로 연행되어 9월 1일 서울시 경대공과로 신병을 이첩하고,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입건한 만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백두의 산자락 아래」에서 진달래꽃이 만발한 백두산천지를 배경으로 노동자와 농민이 성조기를 찢고 불태우

는 모습을 민중봉기에 의한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을 묘사한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른바 당국의 상투적인 조각인, ‘좌경용공’으로 몰아세웠다. 그러나 그림에 묘사된 동자상의 오줌줄기는 레이건으로 상징되는 외세와 전두환, 노태우로 상징되는 군부독재정권의 머리위로 떨어지는 정치풍자화로서 이른바 ‘폭력혁명노선’과는 무관한 내용이었다. 당국은 처음에는 국가원수모독죄로 기소하였으나, 이것으로는 위법성을 가리기에 불리하다고 판단, 동자상이 들고있는 진달래꽃이 북한의 국화로서 폭력혁명노선을 찬양한 것이라고 집요하게 유도하여 전정호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하였다.(판결 :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소위 6·29선언으로 위장한 현정권의 장기집권음모의 일환으로, 민족미술가들의 정당한 민주화 투쟁을 압살하고, 선거국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민족미술가들의 정치선전 미술작업에 대한 열기와 열망에 족쇄를 채우려는 독재정권의 정치적 탄압으로 그 성격이 규정될 것이다.



두분



탈취당한 그림 대신 경위서가 붙어 있다(제주도)



김인순 외 「평등을 향하여」

‘평등을 향하여’ 탈취

때 : 1987년 9월 15일

곳 : 그림마당·민

1987년 9월 15일 민족통일을 위한 큰 그림잔치
출품한 전정호, 이상호의 공동작품을 국가보안법
으로 기소한 서울시경 수색요원들은 증거물 압수
수색영장을 들고 또다시 전시장에 난입하였다.
「그림마당 민」에서 여성작가 42명이 「여성과 현
실—무엇을 보는가」란 주제로 45점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위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터무니없
는 이유로 「평등을 향하여」(김인순 외 5인이 공
동제작한 여성운동을 주제로 한 대형그림)와 올
림픽 관계 재외 작가의 포스터 ‘고문은 올림픽
종목이 아닙니다’ 및 전시탄압항의 성명서, 대자
보 등을 불법압수 하였다. 이에 민족미술협회의
원들의 정당한 항의에 의해 「평등을 향하여」를
무혐의로 반환하는 추대를 보여주었다.

미술창작·전시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강력히 항의한다.

우리 미술인들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명목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예술창작·전시활동을 자유롭게 향유하기를 원해왔다. 그러나, 지금 국내외적으로 민주발전을 여·야 합의하에 촉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는 마당에 우리 미술인들은 예술가의 분신인 창작품들을 유언비어 제작 유포죄 또는 이적 표현물 제작죄라는 미명 아래 부당하게 압수 탈취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가들에 대한 불법연행과 구속이 계속되고 있다. 예술창작품은 예술가의 상상력이 개입되어 현실을 새롭게 재조명하여 재창조한 것일진 데, 예술가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현 정권의 이같은 야만적 폭거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또한 창작품은 예술가의 땀방울의 결정체이자 사유재산인데, 이를 부당하게 압수·탈취해 가는 행위는 분명한 사유재산 침해이다.

우리 미술인들은 예술창작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과 예술가의 생명줄을 위협하는 작품탈취행위 그리고 작가들에 대한 직접적 탄압으로서의 연행, 구속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기본권과 인권쟁취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미술인 연대 서명을 펼쳐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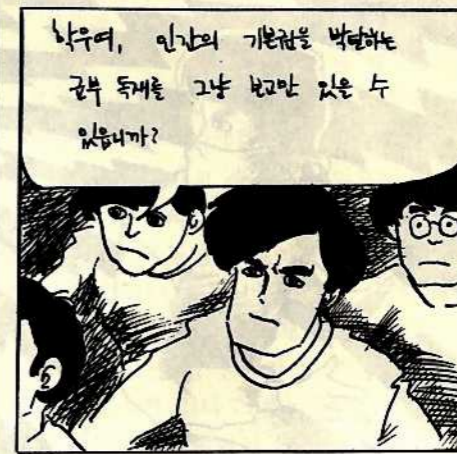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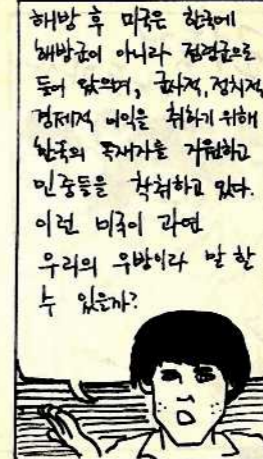
우리의주장

1. '민족해방과 민족통일 큰그림잔치' 제주 순회전에서 탈취해 간 '우리땅을 우리가 던고', '백두산의 산자락', '햇불 아래', '한라산' 등 4점과 '여성과 현실, 무엇을 볼 것인가? — 여성 40인 그림잔치' 전시회에서 탈취해 간 '평등을 향하여' 그림 1점을 즉각 반환하라.
2. 광주시각매체연구소의 구속 작가 이 상호, 전 정호를 내보라.
3. 예술·창작·전시의 자유를 보장하라.
4. 80년도 부터 현재까지 빼앗아간 그림 2,500여점(450여종)을 돌려달라.
조국분단 43년 9월 16일

민족미술협의회



명심히 책도 읽고 세미나도하며
만능이 많으니까 부끄럼
없게 하겠다.



만화정신지 사건, 손기환(민미협만화분과장) 구속

1980년대 중반에 민중만화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만화정신」 제 2권이 편집과정에서 당국의 탄압을 받았다. 1987년 9월 30일 서울시경은 「만화정신」지에 실린 원고 중 일부가 의식을 고양시키며, 특히 반미의식을 고무시킨다는 터무니없는 조작수사의 장기를 여지없이 발휘하였다. 문제된 원고는 최민화의 '분단의 사생아'와 「만화사랑」의 공동작품 '동지를 위하여'(이한열 열사 추모작)와 탁영호의 극화 내용 중 용공성을 억지조작

한 것이다. 더욱이 손기환(편집인)이 자신의 작품을 위하여 촬영한 사진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군사 시설이 들어있다는 것을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기소하고, 아울러 '통일전'출품작가와의 연계관계, 그리고 「만화사랑」 등 학내 문화운동 씨클과의 관계 등을 연류시켜 민족미술협의회 자체를 용공단체로 규정지으려고 한 작태가 노출되었던 것이다. 손기환은 이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11월 12일 석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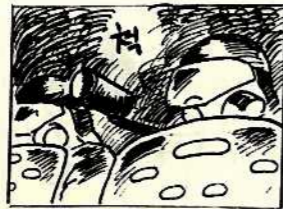
그런데
많은 시민은
반반한
그 간단한
군부독재가



거중도 우리의
목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가. 무엇이
주저불나기?
함께 나옵니다!



군부독재
타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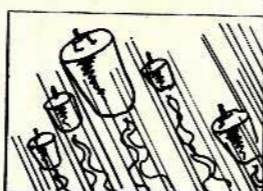
천



바바바



앗!
걱정만이다



만화사랑 공동작품(동지를 위하여 부분)

손기환의 옥중서신

유연복씨 그간 잘 계시는지,
덕분에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민미협 회원 모두에게 나의 작은 실수로 많은 피해를 준 것 같아 상당히 마음 괴롭습니다. 사건은 잘 알겠지만 홍대 앞 복사집에서 만화정신 2권을 위한 복사중 경찰의 쫓나블에 의해 신고, 시작되었습니다. 작업실의 만화정신 1권원고까지 조사를 받아 참가자 전원이 주목받고 있으며, 2권에서 특히 원고를 많이 실었던 최민화씨가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1권에 주소까지 실려 무척 걱정되는군요! 또한 나의 작업을 위한 사진 12장(대전차 장애물 2장)이 크게 문제가 돼 누구에게 사주받지 않았나 조사를 받아 괴로왔습니다. 또한 민미협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 그간 있었던 이상호 사건과 연결 민미협이 하나의 용공 단체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2호 만화정신 원고에서 비롯되는 데 만화 사랑의 원고 중 몇 개의 지문에서 보이는 반미적 요소와 복괴 주장과의 유사성에 크게 수사받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를 전해준 사무국장 최민화와의 관계를 조사받아 민미협 사업 전체에 대한 오해를 하고 서술 자체가 결국 그런 방향으로 몰리게 된 것 같습니다. 만화정신 자료집이 민미협 사업의 일환이었다는 것과 특히 대학, 재야와의 관계 등에 조사를 받았으나 나 자신이 별로 몰라 진술을 못했습니다. 아뭏튼 여러 사건이 꼬여 복잡한 것 같습니다. 대공과에서는 내가 민미협에 대해 모르는 여러 점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진 또한 민미협이나 다른 단체 또는 간첩 등에 의해 의뢰를 받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실이 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융통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잘은 모르겠고 아뭏튼 민미협을 상당히 오해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이상호 사건과 나의 만화정신 건 두 개로 완전히 용공시하는 점은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고..... 개인적인 작업자료 또한 전혀 믿지를 않고, 내 개인은 크게 심각히 생각은 않하지만 민미협 전체가 몇 가지 증거로(만화 정신 1권의 원고 자체도 부분 해석하여 용공성과 반미적 요소가 있다고 봄) 곤란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되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오해를 안은채 상당 부분 밝혀진 편입니다.

너무 모른다는 점이 다행스럽기도 하였지만 내 자신이 답답도 하더군요 속시원히 떠들고도 싶었는데..... 아뭏튼 자세한 얘기가 다음에 만나면 하도록 하고 밖에서 많은 수고 바랍니다. 궁금하군요. 여러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어머니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 기소가 될 경우 변호사를 부탁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그때가서 얘기되겠지만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 사진에 대한 별도의 전시회라도.....

좀 지겹지만 재미있게 지내고 있고 또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실수 안하도록 노력하지요 항상 건강하고 이 편지는 유형한테 보내는 개인적 서신임을 밝힙니다. 몰래 쓰기 어렵군요..... 다음 별 때까지 건강히

연이은 화가 구속에 대한 우리 미술인의 입장

—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화가 손기환을 즉각 석방하라 —

민주화를 위장한 현정권은 지난 9월초에 화가 이상호, 전정호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였다. 예술창작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현 정권은 구속된 화가 석방과 미술인의 창작 활동의 자유에 대한 본 협의회와 요구를 그대로 묵살한 채 다시금 본 협의회 만화분과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군부독재의 비 민주적이고 폭력적 만행을 폭로하면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온 손기환을 9월 30일 그의 작업실에서 강제 연행하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였다. 이러한 계속되는 미술인 구속은 민족 미술과 우리 미술인의 민주화 요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어떠한 탄압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저들의 음모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9월 30일 마포경찰서 대공 3계 형사들에 의해 연행된 손기환은 곧바로 시경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지금도 허위 날조와 허위 자백을 강요 당하고 있다.

불순 단체의 사주에 의했음을 강요 받으며 이를 허위로라도 자술서에 기재할 경우 금방이라도 석방해 주겠다는 갖은 감언이설 속에 그는 조작 당하고 있다. 불법 출판물 제작과 군사기밀 누설죄라는 명목으로 씌어진 그의 죄명은 정녕 가소로운 어린애 장난이었다.

이미 배포가 된 만화책 '동지를 위하여(연세대 발간)'의 '미군은 점령군' 운운 하는 부분은 앞뒤 문맥을 잘라버리고 상투적으로 불순좌경으로 매도한 것이다. 군사 기밀 누설죄라는 군부대 사진 소지를 보면 군부대 외곽 경계선 밖의 사진 몇장을 갖고 있다고 하여 배후 세력을 대라는 등 갖은 협박과 함께 불순한 자로 조작하고 있다.

손기환의 작품들을 보면 그는 진정한 이땅의 민주화와 민족의 극단적 이데올로기로 망해가는 우리 현실을 제대로 표현하고자 노력한 화가였다.

이러한 것은 현 정권이 국민여론을 조작하여 모든 민족미술을 탄압하고 좌경용공이라는 상투적 수법을 그대로 구사한 한 전형에 불과하다.

본 협의회를 전형적인 불법좌경 단체로 지목하면서 호시탐탐 눈에 걸리기를 바라는 당국은, 그동안 은밀한 계획에 의해서 본 협의회를 엄밀하게 조사하고 있었다.

수차례 본 협의회 대표를 연행하고, 기획전시를 탄압하고, 작품탈취, 작가 연행에 이어 이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적용하면서 화가들을 차례차례 구속시키고 있다. 더우기 허울의 누명을 씌울게 없어 이번과 같이 전정호, 이상호, 손기환 순으로 세작가에게 반미(反美) 내용을 확대 적용하면서 조목조목 해설까지 만들어 내어 메카시적 반공 이데올로기로 보안법을 씌우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작태가 현 정권의 단말마적인 발악앞에 도달했음을 잘 안다. 현 정권은 6월 항쟁이후 전국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군사독재 종식을 위한 민주화운동을 가능한 희석화 시키려고 온갖 기만과 술책을 책동하고 있지 않았는가? 9월 위기설이니 하면서 시국이 혼란스러우면 군이개입한다는 식의 현 정권의 흥제는 다시금 국민을 밀실 적인 음모로써 지배하겠다는 얼마나 하잘것 없는 술책이었던가? 따지고 보면 현정권은 민주화 보따리라고 내놓은 소위 6·29선언, 그 이후부터 화단내에서는 여태껏 보기힘든 국가보안법을 세 차례 맞으면서 미술인이 구속되었다. 이를 보더라도 6·29선언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반민주적 술책이었던가를 여실히 증명한 셈이 되었다. 6·29선언은 이제 그 음모적인 술책이 국민과 민주세력 사이를 와해시키려는 당국의 책동이 도사리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이러한 당국의 마각에서부터 화가 손기환은 즉각 석방되어야 하며 이상호, 전정호, 역시 당연히 우리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당국에게 고한다. 9월이후 지금까지 우리 미술인의 자존심과 가슴을 마음대로 짓밟고 갈갈이 찢어논 당국에게 고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허위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는 화가 손기환과 함께 이상호, 전정호를 즉각 석방하라. 또한 민주인사를 포함한 양심범을 구속하는 데 쓰이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우리는 앞으로 국민의 양심을 제한하고 인간의 긍지와 존엄을 무참히 구속시키는 국가보안법을 비롯, 진실을 탄압하는 모든 악법에 대해 두려움 없이 이의 철폐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결의한다. 우리 미술인은 숨막히는 분단독재의 이데올로기 냉전에 대하여 비대화되고 장기화 됨으로 인해 부패된 현실의 모순을 끝없이 추적할 것임을 선언하며 거듭 우리의 주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1. 화가 손기환, 이상호, 전정호를 즉각 석방하라.
2. 예술창작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3. 민미협에 대한 용공좌경 조작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4. 독재 정권의 연장 수단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5. 군부 독재는 즉각 퇴진하라.

1987년 10월 6일

민족미술협의회



송만규 「그날이 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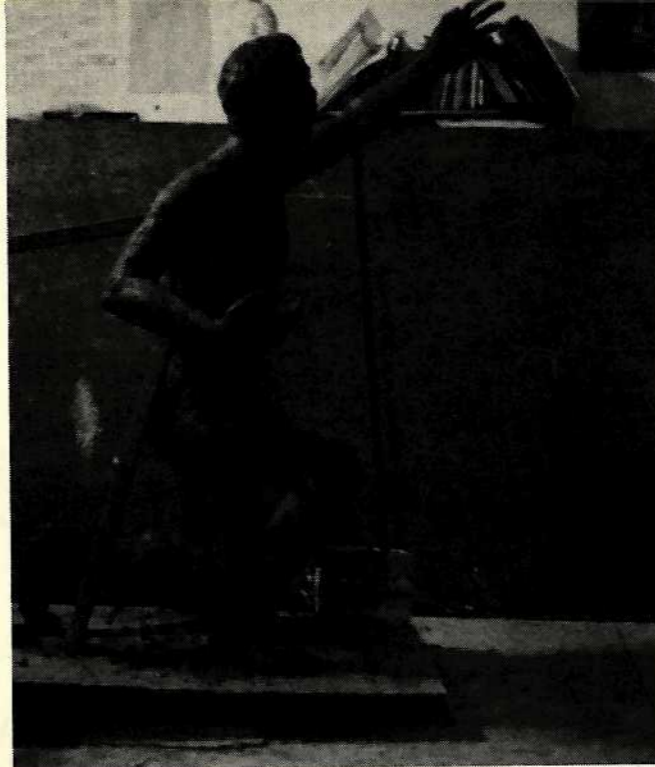
전주고백교회 — 송만규의 걸개그림 탈취

때 : 1987년 11월 30일
 곳 : 전주고백교회

전라북도 민주화운동협의회는 1987년 11월 30일, 광주학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하여 전주고 백교회에서 광주항쟁 비디오 상영 및 사진전시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첫째 1980년 5월 광주시 민을 학살한 현정권의 잔악성을 폭로하고, 둘째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몸바친 광주시민의 숭고한 투쟁정신을 알리고, 셋째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미국의 실체를 폭로함으로써 미국의 정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있었다.

그런데 11월 30일부터 갖가지 정체불명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이튿날, 문양곤(민정당특수요원)의 7-8명의 괴청년(?)이 들이닥쳐 송만규의 걸개그림 「그날이 오면」 외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을 강탈하여 평화적 집회를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청동투사상」의 제작이 마무리된 상태

장안벌의 함성-건대 10, 28항쟁 기념탑 '청동투사상' 강제 철거

때 : 1987년 10월 28일
 곳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관

건국대학교 총학생회는 건대 10, 28항쟁 1주년 기념식을 1987년 10월 28일에 개최하면서 항쟁 기념탑의 제막식을 가졌다. 10·28 항쟁이 숨쉬고 있는 사회과학관 앞에 건립된 이 기념탑은 받침대(높이 5.4m, 재료 철판, 무게 약 3.2톤) 위에 청동투사상이라 이름붙여진 인물상(높이 1.6m, 재료 청동, 무게 약 80kg)으로 구성되었다. 5각형 받침대 위에 학생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상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조경계획까지 마련되었다. 이 기념상은 종합시각매체 연구소 「환」(대표기획: 최민화)에 의뢰되어 추진, 완성된 것으로서 그 건립기금은 건국대학생을 비롯한 전국의 총학생회의 모금으로 충당된 것이다.

그런데 개막 1일 전(10월 28일) 새벽 1시에 전 투경찰 2,000여명이 교내로 난입하여 중앙비로 기념탑을 철거함으로써 군사독재정권의 야만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이에 기념탑 반환투쟁이 즉시 벌어졌고, 법원이 허가한 압수수색의 권한 범위에 대한 시비가 엇갈렸으며, 영장을 집행당한 측에 대한 강제처분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채 집행함으로써, 자의적인 압수수색에 의한 개

인이나 단체의 사적인 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자행하였다는 여론의 비판이 집중되었다. 결국 형사소송법 규정상의 취지에서 볼 때 압수수색영장에는 '시위관련용품'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기념탑은 압수대상으로 예시된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사법 경찰의 이 사건에 대한 압수처분은 위법임이 판명되었다.(1988.2.2.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형태)

이 기념탑 건립의 계기가 된 1986년 10월 28일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애학투)은 기존의 학생운동에서 보였던 노선상의 이견과 전체 대중을 중심에 두지 못했던 오류를 극복하고, 최초로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선언하였던 한국학생운동사에 있어 중요한 전기를 이루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기념탑은 장안벌에 올려져 있던 10,28건대항쟁의 뜻을 기려 자주통일과 민중해방을 염원하는 상징으로 젊은 청년을 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그 이름을 '청동투사상'으로 명명하였다. 군부독재의 야수적 탄압에 의하여 사흘밤 사흘낮의 투쟁 과정에서 사상 유례없는 1,200여명의 구속자를 낳았던 이 사건은 군부독재의 폭압성을 극대화했던 탄압행위였다.



기념탑 반침대에 부조로 제작될 예정이던 10.28항쟁의 현장사진



공동제작: 김인순, 윤석남, 김종례, 구선희, 정정엄, 최경숙

6월민주항쟁 기념엽서 압수

1987년 11월 2일 한국여성단체연합(여단) 사무실에 남대문 경찰서 대공3계 소속 사복형사 15명이 불법 난입, 6월민주항쟁 기념엽서에 대해 반미 및 반정부 감정고취, 사회불안 고취라는 이유를 들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 기념엽서 7,000매 전량을 압수하였다. 이 엽서는 1987년 7월 민주시민대동제에서 6월항쟁을 기념하여 시민들이 함께 완성시켰던 그림을 소재로 만든 것이다. 전국

민이 함께 외쳤던 「군부독재타도」, 「독재지원 미국반대」, 「최루탄 추방」과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주장을 형상화한 그림이 어찌하여 위법행위일 수 있겠는가! 더구나 소위 6·29선언이 이같은 국민의 저항을 인정한 결과로서 나온 것이 분명한데, 6월 민주항쟁 기념엽서를 압수한 처사는 현정권이 6·29선언 자체를 실천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허구성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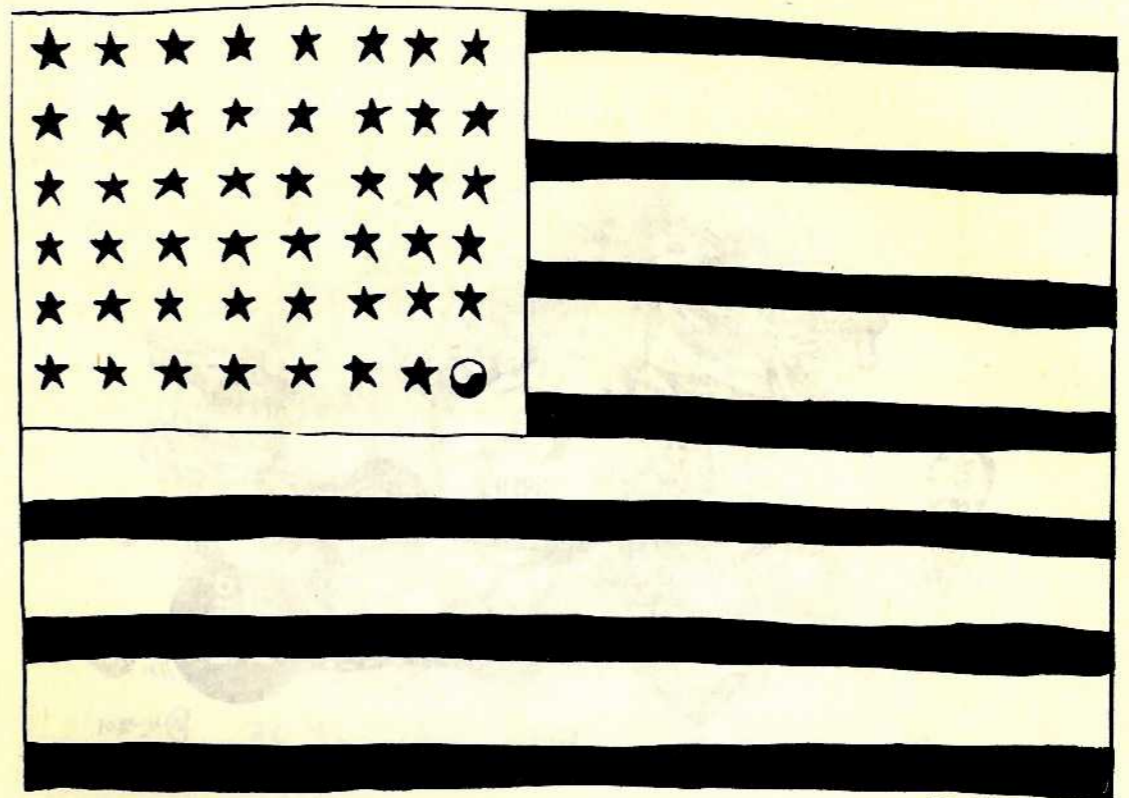
「반쪽이 만화」 탈취

때 : 1987년 12월 13일

곳 : 서울 을지로 2가 인쇄소

1987년 12월 13일, 을지로 2가 유진제본소에서
제본중인 예명 반쪽이가 그린 「반쪽이만화」 3,
000부를 중부경찰서에서 전경 50여명을 동원하여

영장없이 강제로 압수, 강탈하였다. 「반쪽이 만
화」는 '민주언론운동협의회'와 '민족미술협의회'
에서 발간한 기관지 등에 발표한 반쪽이의 만평
작품을 모아 만화운동의 일환으로 제작한 것이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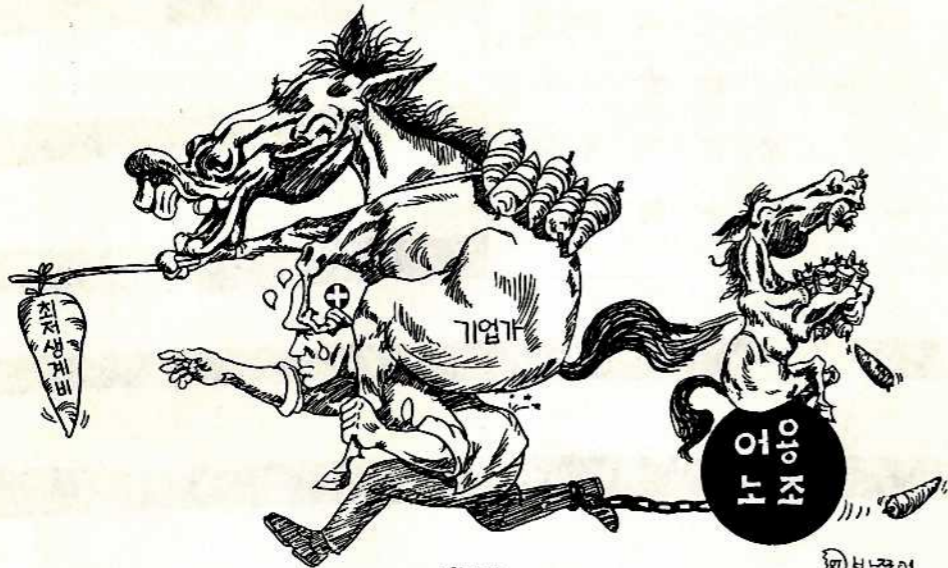


반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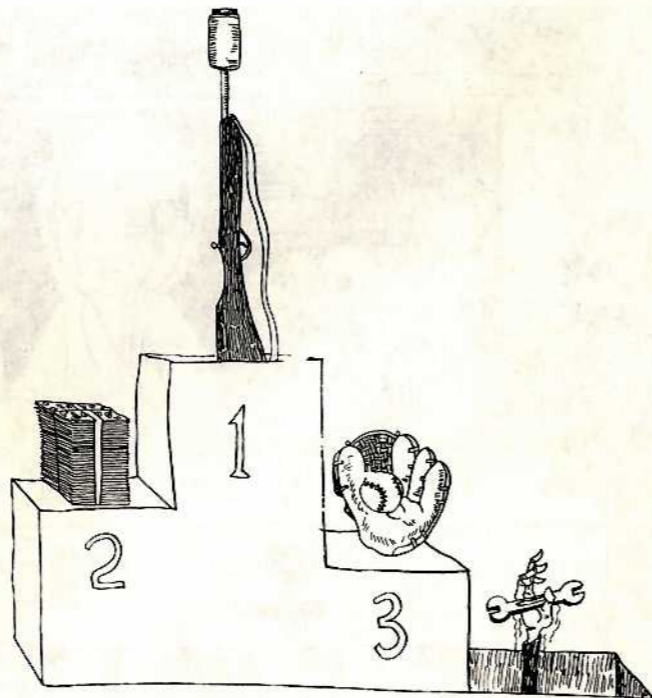
새마을 운동으로 국가속의 또 하나의 국가를 만들었으니
이번에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 다 같이 추배를...

반쪽이



말만...

반쪽이



死 반쪽이



좋은 책은 당신을 좋은 길로 인도 합니다 -교보문고-



채플린



코수영을 모방해서
많은 인기를 얻은
히틀러



작은 독재자의 꿈



작은 독재자 형님

반쪽이

민주·문화운동 탄압일지 (80~87)

1980년

- 5.17. 군부쿠데타 계엄 확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문화계 인사 고은, 송기원 구속
- 5.18. 광주민중항쟁
- 7.31. 정부(계엄사). '창작과 비평', '문학과지성', '씨알의 소리', '뿌리깊은 나무', '월간중앙' 등 172개 정기 간행물에 대한 등록을 강제 취소
- 12.31. 언론 기본법 제정 공포
- 12. 정순철, 임중수 등 광주 미 문화원 방화

1982년

- 3.18. 부산 '미문화원' 방화
- 9.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반대투쟁
- 9월이후 레이건 방한 반대투쟁 가열화.

1983년

- 9. 기만적 자율화 조치
- 9.30.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발족
- 12.20. '해직교수협의회' 발족

1984년

- 3.10.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창립
- 3.24. 80년 해직 '언론인협의회' 결성
- 4.14.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창립
- 5. 강제징집사망. 6인 열사 추모대회
- 9. 청계노조 합법성 쟁취대회
- 11. '민주화투쟁전국학생연합' 소속 264명 '민정당' 중앙당사 점거투쟁
- 12.19.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창립
- 12.19.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창립
- 12.30. 목동철거민 생존권 요구투쟁 가열화

1985년

- 3.29.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발족
- 5. 4. '민중불교운동연합' 결성
- 5.16. 도서출판 '풀빛' 대표 나병식씨, '유한정판사' 대표 김상기씨, '영신제책사' 전무 박종옥씨 등을 연행, '풀빛'에서 제작중이던 도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광주 5월 항쟁의 기록(황석영 편)의 인쇄물 2만부 압수
- 5.23.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투쟁
- 6.17. 서대문경찰, 민문협에서 기관지 '민중문화 8호' 40여부와 기타 성명서 압수
- 6.24~29. 구로동맹파업 투쟁(세진전자, 남성전기,

미술창작과 전시 탄압일지 (80~87)

1969년

- 10. '현실동인 창립전' (오윤 외)이 대학당국의 방해로 취소.

1980년

- 7.23. '서울현대미술제'에 초대 출품된 작품 「시민」이 당국에 의해 철거.
- 10. '현실과 발언 동인 창립전'이 문예진흥원 미술관에서 개막되었으나 행정당국의 압력으로 인해 좌절
- 10. '2000년 작가회 2회전'이 광주 아카데미 미술관에서 개막되었으나 경찰당국의 압력으로 일부 작품을 철거함.

1981년

- 1. 행정당국에서 '불은작가명단'을 작성, 이에 문공부에서 5명(대상작가: 임옥상, 김경인, 강광, 홍성담, 신경호)을 지명하여 대다수 작품을 압류하고 그 가운데 교직자에 대한 경고, 소속 단체 탈퇴를 종용함.

1982년

- 기독교농민회에서 제작된 김봉준의 「농사꾼타령」이 당국에 의해 압수.

1984년

- 5. 화가 최민화의 만화작품(세 오랑개)를 문제 삼아 작가를 경찰당국이 연행, 4일간 억류 조사한 후 석방하면서 작품 압류.

1985년

- 5. 홍성담의 판화작품(대동세상)을 인쇄하던 중 경찰이 들이닥쳐 2,000여점을 불법적으로 탈취해 감.
- 5. 광주민중항쟁 기념관에 설치된 김경주 등 4명의 공동작품 (광주민중항쟁기념 신장도)를 경찰당국이 탈취, 이때 각종 사진, 판화 및 작업 도구와 책자 등까지 함께 탈취해 감.
- 7.20. '1985년 한국미술 20대의 힘전'이 아람문화원 전시실에서 13일부터 개막 전시중 20일 오후 1시경 종로경찰서 형사 5명이 전시장에 난입, 기획위원회측에 전시중지 및 작품철거 요구와

함코리아)

- 7. 2. 민언협 성유보 사무국장 '말' 창간호 관계로 구류 10일, 또한 김도연 '공동체출판사' 대표도 같은 혐의로 구류 3일
- 8. 9. 민중교육지 사건(윤재철, 김진경, 송기원 구속)
- 8.15. 실천문화사 압수수색 '민중교육' 5천부 압수
- 8.16. '말' 2호 관계로 김도연씨 연행
- 8.23. '실천문학' 폐간
- 8.27. 문학인 1,000인 서명 운동 및 구속자를 위한 모금 전개. 자실 회보 출판관계로 이삭 출판사 등록 취소당함.
- 9.17. 시경, 민문협에서 '민중문화 9호' 130여부 압수
- 9.26. 제 7회 민족문학의 밤(홍제동 성당) 경찰제지로 무산
- 10.4~18. 85년 봄에 장기공연대 호평을 받았던 연희광대패의 마당극 '밥'의 지방공연 방해. 10.4(대구, 10.18(인천))
- 10.10. 전주 도서출판 '아침'에 대해 소재지 불명을 이유로 등록취소
- 10.12. 민문협, 언협, 자실이 공동으로 펴낸 '문화탄압백서' 압수
- 10.16. 민언협 실행위원 구류 7일
- 10.21. 성유보 사무국장 '말' 3호, '문화탄압백서' 관계로 구류 7일
- 11. 2. 대학생 25명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 점거농성투쟁
- 11. 4. 7개대생, 14명 주한 미상공회의소 점거농성투쟁
- 11. 4. 고대생 10명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농성투쟁
- 11.13. 언협 사무국장 성유보씨와 민문협 유인택 사무국장 유언비어유포혐의로 구류처분 받음.
- 11.18. 전학련 '민중민주정부 수립과 민족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위' 산하 '파쇼헌법 철폐 투쟁위원회' 소속 14개 대학 191명 가락동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농성투쟁
- 11. 대구 도서출판 '화다' 등록취소
- 12. 9. 부정기 간행물 '창작과 비평'을 발행한 창작과 비평사에 대하여 이 책이 부정기 간행물이 아니라 정기간행물이라고 간주하여 등록취소함.
- 12.10. 창작과 비평사 등록취소 철회 성명발표 농성

1986년

- 2.23. 민족문화회보 6집, 책자, 유인물 등 50여종 압수
- 3. 3. 자실, 사무국장 김정환씨 연행 '민중문학' 6집과 관련해 구류 7일받음.

- 동시에 이를 거부하는 작가들을 밀어내고 몇 점의 작품을 떼어 바닥에 팽개침. 오후 5시에 열릴 세미나에 관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취소하라고 협박.
- 7.21. 오후 9시경 아람문화회관측은 경찰의 압력에 의해 건물을 폐쇄함. 오후 2시경 항의하는 작가 19명을 강제연행 후 오후 4시 30분경 14명의 작가를 풀어주고 기획진 및 출품작가 5명을 계속 불법구금 조사.
- 7.24. 「20대의 힘전」 기획진 및 출품작가 5명(손기환, 장진영, 박진화, 김우선, 김준호) 유언비어 제작 유포죄로 구류 선고.
- 8. 1. 「20대의 힘전」 출품작가 3명(박불똥, 장명규, 박영률) 유언비어 유포죄로 구류 선고.
- 8. 1. 미술동인 '임술년'의 전시회가 광주 다리화랑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국의 압력으로 대관 취소. 「민중시대의 회화전」이 아람미술관 전시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국의 압력으로 대관취소
- '푸른 깃발전'이 아람미술관 전시실에서 8월 14일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국의 압력으로 대관 취소
- 8.30. 김봉준과 두령이 제작한 대형걸개 그림 2점을 민중불교운동연합에서 주최하는 우란분제 행사용으로 빌려주었으나 당국이 이를 불법 탈취함.
- 9.24. 빼앗긴 작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는 작가 김봉준을 연행, 유언비어 유포죄로 구류 선고.
- 10. 서울 근교에 있는 작가 박홍규의 자취방을 불시 수색하여 판화, 목판화 및 제작도구 일체를 탈취 해감.
- 11.30. 민통련에서 발행한 그림달력 「민족미술열두마당」을 당국에서 탈취함.
- 12. 4. 당국에서 그림달력 「민족미술열두마당」을 2차 탈취함.

1986년

- 1. 서울미술관에서 기획한 전시회 '81-84 문제작가 작품전'에 출품된 신학철의 작품중 일부를 당국에서 임의로 지정, 철거요구함.
- 5. 4. 서울노동운동연합 선전부원 이은홍(네칸 만화

- 4.17. 서대문 경찰서 민문협회보 '민중문화' 11호 20여권을 압수 마포 경찰서 연합 기관지 '말' 5호 1천 9백부를 제본소에서 압수
- 4.24. 김태홍 사무국장 '말' 5호 관련으로 구류 10일
- 4.28. 이재호, 김세진열사 분신투쟁
- 5. 3. 5·3 인천투쟁
- 5. 9. 민족 문화회보 7집 인쇄중 5,500부 압수당함.
- 5.10. 교육 민주화 선언 투쟁
- 5.27. 연합 사무국장 김태홍씨, 기자 최민희, 김철민씨 영업간사 배시병씨 노량진 경찰서에 연행. —광주항쟁기록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2'를 인쇄소에서 인수도중 책을 압수당함. 관계자 연행
- 7. 2. 한출협, 연합 공동으로 한출협 의장 정동익씨 등 출판인 3인 연행에 항의하는 성명 발표. 농성.
- 7. 8. 경찰, 민문협 사무실과 서점가의 서적압수 각종 테이프(1~9집) 1백 50여개 압수
- 7.15. 민교협 심성보 사무국장, 퇴근길에 안기부로 연행
- 8. 8. 문공부, 경찰 합동으로 서울 시내 24개 서점 수색, 약 25종 도서·자료 압수, 서점주인 10여명 연행
- 8.10. 농민 문화 선진대 뜬패의 공연자료집 및 대본집, 증부서에서 압수
- 8.18. 신원 중학교 조용진 교사 부당징계, 서울시교위 연합 김태홍 사무국장 마포서에 연행
- 8.20. 김태홍 사무국장 '말' 7호 관계로 구류 7일
- 9. 6. 만문협 통일국 행사 경찰의 제지로 무산, 가두시위
- 9.11. '말' 특집호와 관련, 연합 사무실 수색, '말' 약 2백여권과 유인물 대량 압수
- 9.24. 서울시경 '민족민주교육 쟁취투쟁위원회' 사건 발표—윤병선(관악고), 노현식(양화중), 송원재(당곡고), 한상훈(강서중), 이상대(당산중), 이장원(봉화중), 지영근(사대제적생)씨 등 7명 구속
- 10. 8. 고규태 시인(자실회원), 국가 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
- 10.10. 자실 박용수간사, 법정폭행에 대한 항의도중 연행
- 10.16. 민문협, 노래테이프 9집 '그날이 오면' 압수당함
- 11.18. 성북경찰서, 서울 영상집단회원 홍기선, 변재란 불법연행
- 11. 9. 성북경찰서, 서울 영상집단 사무실 불법난입,

- ▲ 깡순이)을 보안사 요원들이 연행, 인천사태와 노동자신문 제작과 관련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
- 7. 5. 그림마당 민 개관 기념전의 하나인 '젊은 세대에 의한 신선한 발언전'에 전시된 작품 5점에 관하여 문공부에서 철거 요구
- 7. 9. 일본 JAALA 미술가회의 기획으로 일본 동경 미술관에서 열린 「제3세계와 —제5민중의 아시아전」에 한국작가 23명의 작품 66점이 출품되어 이 행사에 초대된 원동석, 손장삼, 김정현의 출국이 당국에 의해 방해받음.
- 7. 성균관대학에서 민족미술협의회 회원의 작품으로 전시중, 당국이 불법난입하여 약 50여점의 작품을 탈취함.
- 7. 9. 6명의 미술 대학생이 자신들이 입주한 신촌역 옆 건물 외벽에 대형벽화를 제작하던 중 구청 및 동사무소직원과 경찰 등 약 20여명이 페인트와 로울러를 들고와 벽화를 완전히 파괴함.
- 8. 2. 화가 유연복, 홍황기, 김진하, 최병수등 5명이 유연복의 집 담에 17×3미터의 대형벽화 상생도를 거의 완성해 갈 무렵 당일 오후 3시경 경찰, 구청, 동사무소 직원 70명이 몰려와 화가 유연복을 강제연행하고 벽화는 수성페인트로 파괴함.
- 8. 3. 화가 유연복, 홍황기, 김진하, 최병수가 벽화 파괴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4명을 광고물 등 관리법 가운데 미풍양속 및 도시미관 저해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
- 11. 안성에서 중앙대생들에 의하여 제작된 안성벽화가 당국의 압력을 받은 건물주 손에 의해 파괴됨.



사무실집기, 책, 자료, 카메라, 영사기 등 압수,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들 모두 연행 회원 이효인씨를 집에서 연행

- 11.14. 민문협 '민중문화' 13호 압수당함(서대문서)
- 11.16. 김정환 자실 사무국장,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
- 11.17. 서울 영상집단회원 이효인, 홍기선 '영화위반법—검열미필'로 구속, 변재란 불구속 입건
- 11.25. 민문협 노래테이프 50여개 압수당함—경찰에서 사무실 압수수색
- 12. 2. 가문협 회원 5명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동우회원 이대훈씨등 5명이 좌경의식화 학습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 12.10. '보도지침' 폭로와 관련 9.6일 이래 수배를 받은 김태홍 연합사무국장 남영동 대공수사단에 연행
- 12.15.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 '보도지침' 기사자료 제공혐의로 대공수사단에 연행, 신흥범씨 국가보안법위반 및 국가모독죄 혐의로 구속
- 12.17. 김주언 기자 구속(한국일보)

1987년

- 1월 박종철군 고문 살해
- 2. 7. 박종철군 국민추도투쟁
- 2.12. 서울지검 공안부, 도서출판 풀빛의 대표 나병식, 발행인 홍석, 편집부장 김명인을 '한국민중사 1.2.' 발간과 관련하여 자택에서 연행, 동서적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인쇄소에 보관중이던 지형을 압수 나병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명인을 불구속 입건
- 2.27. 서대문경찰서, 민중사에서 제작중이던 '고문·성고문' 2,000부를 압수하고 직원 정태인, 김연희, 정희은등을 연행하고 송광용을 수배
- 3.10. 정상모 사무국장대행 보도지침 재판 상황을 소개한 1,2,3,4,호 관련 유언비어 유포혐의로 구류 7일
- 3.31. 서울지검 공안부. 미래사 대표 김준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러시아 농민운동' 발간혐의)
- 4. 인간사 주간 김홍범 편집부장 이만근, 제작중이던 서적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4.27. 도서출판 세계 발행인 윤후덕, 사계절 출판사 발행인 김영중, 거름출판사 편집부장 강경철, 도서출판 동녘 발행인 이진복, 국가보안법혐의로 구속
- 4.28. 도서출판 녹두 발행인 김영호, 전무 신흥식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1987년

- 2. 1. 광대원(민미협홍보부장), 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규탄대회의 전단제작 관계로 대공수사단에 연행, 5일간 조사받고 불구속 입건됨.
- 3. 그림마당 민에서 민족미술 협의회 주최로 「반고문전」을 개최하였는데 경찰당국에서 전시회 부대행사를 방해함, 이에 작가들이 항의하자 주재환 대표를 불법 연행해 감
- 7. 2 고 이한열군 영결식장인 시청앞 광장에 최민화의 대형 그림 「그대 뜬 눈으로」 (이한열 열사 부활도)가 시민 학생들에 의하여 연세대에서 세종로까지 가두행진에서 전시되었는데 전투경찰에 의해 파괴됨.
- 9. 1. 「민족해방과 민족통일 큰 그림잔치」 제주시 순회전중 '백두의 산자락 아래', '한라산' 등 4점의 대형 걸개 그림이 압수되고 제주 순회전 기획자 문행섭이 연행되어감.
- 9. 7. 민족미술협의회 대표 주재환을 종로경찰서에서 연행 불구속입건
- 9. 7. 그림마당 민에서 「여성과 현실 무엇을 보는가?」이 열리고 있던 중 종로경찰서에서 이상호, 전정호사건과 관련 증거를 보강한다는 명목으로 대형그림 '평등을 향하여' 등 작품 3점을 압수해간 뒤 무혐의로 반환.
- 9.30. 민족미술협의회 만화분과위원장 손기환을 서울 마포경찰서 대공 3계 형사들이 작업실에서 연행해감.

- 5. 16. 마포서에서 언협, 자실 사무실 수색, 팜플렛 '우리의 염원은 통일'과 유인물 3천여점 압수
- 5. 27. 서울지검, 김태홍에게 징역 3년, 신홍범, 김주언에게 각각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구형
- 6. 3. 서울형사지법, 김태홍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주언에게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 신홍범에게 선고유예 판결
- 6. 4. 서대문 경찰서에서 민문협 사무실 수색
- 6. 5. 5·3 인천항쟁의 배후로 지목되어 수배중이던 민문협대표 실행위원 김종철 연행, 구속
- 6. 9. 서대문 대공과에서 민문협 사무실 수색, 책자 및 유인물 3천여점 압수
- 6. 10. 6월 반독재 민주화 대항쟁
- 8. 28. 홍사단 서울 본부 후원으로 '판금도서 전시회' 개최(3일간 예정), 첫날(28일), 동대문 경찰서, 72종의 도서 압수, 회장 이우회 사무국장 홍종도를 연행, 홍사단 청년회원 오동진 연행(세사람 모두 8.31구속)
- 9. 11. 마포경찰서에서 민문협 사무실 수색 팜플렛 '아, 민주여 민중의 함성으로'와 유인물, 자료 등 1천여점압수
- 11. 5~9. 정부여당,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악시도, 한출협의 투쟁에 의해 무산됨
- 11. 14. 시경, '자본론', '레닌독본' 등은 원서를 대량 복사, 인쇄 전국서점에 공급해 온 거름 출판사 대표 박종규, 영업부장 유환옥, 사원 홍대옥, 인간사 대표 여균동 그리고 이 책자를 판매해 온 풀무질 서점 방은호씨 등 5명을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 글방서점 대표 배노연등 5명 불구속 입건, 탐독해 온 대학생등 36명은 조사중
- 12. 9. '말' 18호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종로경찰서에서 불법압수, 이석원 사무차장, 왕길남 편집차장 연행. 서울형사지법 압수영장 청구를 두 차례 기각하자 압수물 반환

- 10. 2. 이상호, 전정호를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제작죄와 반국가단체 찬양죄 위반혐의로 구속
- 10. 3. 손기환이 민족미술협의회 만화분과사업으로 만화 무크지 만화정신 2집을 편집 제작 중이었는데 수록될 만화 작품이 문제가 되어 국가보안법, 불법출판물 제작죄가 씌워졌으며, 손기환의 회화작품 중 기초자료인 군사시설사진이 문제시되어 국가보안법, 군사기밀 누설죄 위반혐의가 추가되어 구속됨.
- 10. 27. 건국대 총학생회가 그림패 「환」(종합시각매체연구소)에 의뢰하여 건대학생항쟁 기념탑을 건립하려고 교내 사회과학관에 높이 7m의 청동투사상을 완성하여 설치하였으나 심야에 전투경찰 2,000여명이 난입, 기증기를 사용하여 강제철거함.
- 11. 한국여성단체연합사무실에 남대문 대공 3개 소속 사복형사 15명이 불법 난입, 6월 항쟁 기념엽서에 대해 반미 반정부 감정고취, 사회 불안 고취라는 이유를 들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 7,000매 전량압수.
- 11. 30. 전라북도 민주화운동협의회외의 광주항쟁비디오 상영 및 사진전시 중 문양곤(민정당 특수요원)외 7~8명의 피청년이 난입, 송만규의 걸개그림, '그날이 오면'의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을 불법압수
- 12. 13. 을지로 2가 유진제본소에서 체본중인 '반쪽이 만화' 3,000부를 중부경찰서에서 전경 50여명을 동원하여 영장없이 강제로 압수.

민족미술운동자료집 ①
군사독재정권 미술탄압사례
1980~1987
 인쇄 1988년 3월 25일
 발행 1988년 4월 1일
 발행인 원동석, 주재환
 발행처 민족미술협의회
 주소 :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전화 : 744-3766, 762-4288

값 2,000원

88.4.1